

다들 듣는 얘기 의미방울

www.womenfund.or.kr 2015 5호

기획

성평등, 의회로 가다

나눔과 공감

여성들의 꿈과 희망,
여성재단을 응원합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미혼모에 대한 관심, 인식 변화의 출발



당들에게 의망을



가족모두가 한국여성재단 기부자! 남매(원예달, 원예봄)와 부부(손영옥, 원순재)가 들려주는 나눔이야기(사진: 윤강수작가, 재능나눔)

2015. 5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이해경 이사장
 편집인 박기남 사무총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5년 9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
 디자인 도서출판 산티 02-3143-6360

Contents

- 08  03 **사립문**
70년만에야 알게 된 여성의 이름
이경순_한국여성재단 이사
- 10  04 **기획 성평등, 의회로 가다**
여성정치, 속 깊게 이해하기
여성정치시민학교 <풀뿌리여성학교>에 가다
여성정치로 소통하라
- 10  05 **나눔과 공감**
여성들의 꿈과 희망, 여성재단을 응원합니다
- 14  14 **함께 만드는 변화**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미혼모에 대한 관심, 인식변화의 출발
- 21  16 **소식**
재정보고
후원현황
재단소식
- 23 **2015 만만클럽 SOS 캠페인**

사립문

70년만에야 알게 된 여성의 이름

얼마 전에 개봉돼 1천 만 명 이상의 관객이 본 영화 <암살>은 여러 가지 관심과 화제를 모은 영화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영화로 인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독립운동을 독립운동 하는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거나, 독립군들에게 밥을 지어 주고 바느질을 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등 돕는 역할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영화 <암살>은 충을 들고 싸우는 여주인공을 내세워 우리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소극적인 헌신에 머물지 않고 항일투쟁에 능동적으로 나선 이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 첫손 꼽히는 이는 ‘여자 안중근’ ‘독립군 어머니’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북 영양 출신의 항일투사 남자현 애국독립지사이다. 그러나 여성독립운동 연구자들은 안옥윤이라는 캐릭터가 남자현 의사뿐만 아니라 윤희순, 안경신, 이화림, 박차정 등 여러 명이 복합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같이 의병 하러 나가보세’라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여성의 독립운동을 독려한 한말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평남도청과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여자 폭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경신 의사, 김구 선생의 비서로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을 만든 이화림 여사, 중국 곤륜산 전투에서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34살 젊은 나이에 순국한 ‘곤륜산의 영웅’ 박차정 의사 등이 그들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광복절 전후해서 여성가족부가 열었던 특별기획전 ‘독립을 향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에까지 이어졌다. 한국광복군 창설대원으로 활동한 오광심, 광복군 지청천 총사령관의 딸로 광복군에 입대해 ‘대한의 잔다르크’라 불렸던 지복영,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대일항전에 나섰던 권기옥(영화 <청연> 주인공) 등이 조명을 받았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목숨 바쳐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국가보훈처에 기록된 여성 독립운동 참여자 약 2천명 중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단 265명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 열사의 이름 석 자만 겨우 알고 있을 뿐, 수많은 여성 항일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활동은 역사의 뒷안길에 묻힌 채 잊혀졌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생겨나서 정말 다행이다. 자랑스러운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널리 알릴 좋은 기회이다. **W**

한국여성재단 이사 이경순

성평등, 의회로 가다

하늘 드높은 화창한 가을날, ‘빨간’ 여성들이 여의도에 나타났다. 내년 2016년 총선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 머리에 빨을 달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유력 정치인의 여성정치인 비하발언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여성정치, 속 깊게 이해하기



📌 지금, 여기. 우리나라 여성정치권한의 현 주소

“요즘에 남녀차별이 어디 있나,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시절 아닌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나라별로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점검하는 성격차보고서(Gender Gap Index Report)를 보면 한국 성격차지수(GGI)는 1.00 만점에 0.64점, 등수로 하자면 한국의 여성지위는 조사대상 142개국 중 117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점수를 낳은 주요 원인은 저조한 여성정치권한에 있다. 매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코노미스트紙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로,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첫 총선 당시에는 당선자 200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안동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영신이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되고, 제2대에는 210명 국회의원 중 임영신과 함께 종로갑에서 박순천이 당선되어 여성 국회의원은 두 명이 되었다. 박순천의원은 제4~7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어 활동한 초창기 여성정치인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당시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남성의원의 공격에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 길러서 쓰겠느냐.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되받아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여성은 47명(15.7%)이었다. 세계의원연맹(IPU)은 매월 국가별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공개하는데, 2015년 9월 현재 한국은 143개국 중에서 북한과 나란히 89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경제규모나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OECD국가들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아시아지역이나 아랍지역 평균치인 1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국회 안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정치적 소수자

앞에서 언급한 박순천의원은 말년에 ‘방광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소변을 참아서 생긴 병이란단.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회 청사로 사용했던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에는 아예 여성화장실이 없었다. 당시 박순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으로 활동했던 남성정치인들은 그 고통을 알았을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성들로서는 겪어보지 못한 의회 내 소수자인 ‘여성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면서 국회의원들의 성 평등 감수성도 조금은 나아졌다. 지난해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까지를 고려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일은 이제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법·제도는 바뀌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문화까지 변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회가 성폭행으로 문제가 된 심학봉의원의 ‘국회의원제명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 대표성확보를 위한 여성할당제

여성당선자 비율이 두 자리 수를 처음 기록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이었다. 그 당시 여성운동계는 ‘17대총선 여성연대’를 조직해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통해 여성후보추천운동도 벌였다. 한국여성재단이 주도한 ‘맑은정치여성기금’모금운동은 당시 여성정치참여운동에 큰 힘이 되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들은 ‘제20대 총선 여성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을 조직했다. 한국은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득권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큰 효과가 없다. 여성의 정치적 권한이 확보된 유럽선진국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와 여성정치참여는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다. **W** 글 김은희 녹색당 정책위원장, (전)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여성정치시민학교 <풀뿌리여성학교>에 가다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여성들과 꾸준히 생활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후원받아 그동안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풀뿌리여성학교>를 열어 일반여성들 대상, 생활정치강좌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9월10일, 마침 수업이 열리는 도봉여성센터를 방문, 동북여성민우회 생강(생활정치를 건강하게)팀 김수경님을 만났다.



Q <풀뿌리여성학교>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풀뿌리여성학교>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여성정치를 주제로 기존 정치강좌, 모니터활동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총집결된 것이죠.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의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총 8회 중 여섯 번째 강좌였어요. 여성정책이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누구도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여성정치의 출발은 지역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첫 강의로 과천 시의원활동을 했던 서형원님을 초대해 생생한 지역 풀뿌리민주주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민우회 대선배인 김연순님의 도봉지역 정치 활동도 듣는 기회가 있었어요. 94년부터 활동했던 의회 방청이나 2002년 시민후보를 내던 그때 이야기들이나 생활쓰레기문제 해결 등 생활과 밀접한 활동들을요.

Q 더불어 진행 중인 <풀뿌리모니터단>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모니터단은 지난 4월부터 시작했어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셨는데, 20~30대 여성들은 보육시설에, 40~50대 여성들은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보육시설문제는 최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의 속을 가장 애태우고 있는 주제이고 노후 문제는 빠르게 한국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사회

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 보육 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모니터링을 했죠. 4월부터 8월까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도 만들면서 열 명 정도가 꾸준히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터뷰를 잘 안하려고 하시죠. 특히 시설 대표님들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본적으로 보육 문제는 교사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개방적인가가 관건이에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토론했고 강연도 들으면서 모니터결과와 의견을 모았죠.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우선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에요. 심지어 혐오시설처럼 생각하는 동네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기도 하고요. 데이케어센터가 노인시설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Q 가장 큰 성과라면?

향후 여성구의원, 행정담당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결과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모니터의 결과를 모아서 전달한 의견이 모두 정책으로 입안되면 좋겠지요. 가장 큰 성과는 여성들의 변화죠.

이전에 활동경험이 전혀 없었던 여성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더 나아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 것, 보통의 엄마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현안을 몸소 경험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결과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했구나'하는 뿌듯함, 보람도 느끼죠.

Q 이후 예정된 활동은?

사실 작년 2014년 지자체 앞두고 민우회 생강팀은 민선 5기를 평가하고 민선 6기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단체가 원하는 공약을 예비후보에게 전달했어요. 당선된 의원들과는 정책 협약식을 통해 이행해달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 경험을 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엮어야겠죠. 올해 진행한 모니터단활동도 계속해 나갈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내년엔 청소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요즘 언론에서 비춰지는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치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혐오하게 되었어요. 뭔가 변화할 거 같지 않고 기대감이 생기지 않죠. 근데 지역 풀뿌리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지역시설도 모니터하고 의회방청도 하면서 의견도 내보고 결국엔 바꿀 수 있어요. 여성들이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해요. 동네를 가장 잘 알고 가족 구성원들의 민원창구이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늘 가정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이죠. 한마디로 생활정치의 달인이에요. 지역구의 여성들 모두가 구의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지역을 통해서 바뀌나가는 연습, 그러한 생활정치의 주인공으로서 엄마들, 여성들이 가장 지역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모니터단에 참여하신 분들하고도 이런 생활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W

여성정치로 소통하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이하 여성연)은 2015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부산, 창원(경남권), 대전(충청권), 인천, 서울, 파주고양(경기권) 등 전국적인 <여성정치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여성의원비례대표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단체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 주제로 토론하기

“정치? 한마디로 어려워요. 복잡해요. 국회의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문득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요. 진짜 정치인은 자신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치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정치가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담합과 야합의 산물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나 몰라요.” 지난 8월27일, 파주온정행복센터에서 개최된 여성

정치집담회 풍경이다. 고양파주지역의 시의원, 여성단체 회원, 일반 시민 30여명이 모인 이날, 모둠별로 나누어 정치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초반 평소 관심 없다고 했던 이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각각 모둠은 정치란 무엇일까부터 제대로 된 정치란 어떤 것일까로 이어지고 여성정치인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 환경 필요

“무엇보다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우린 왜 이렇게 여성정치인이 적죠? 그렇다면 남녀비율 50:50이 가장 바람직한 숫자죠.” 아직까지 여성정치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게다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정치인은 더더욱 손에 꼽아야 하는 현실을 얘기한다.

정치가 여러 갈등을 인정하고 타협과 화합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제까지 남성정치가 만들어 놓은 건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건 가진 자들의 정치였던 거예요. 약자, 여성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성적 소수자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환경들이요.” “세금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해요.” 다양한 입장과 환경에 놓인 이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직능별 할당제나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이고 그 대신 세비를 낮추고 의원수를 늘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었다. 그런 환경속에서 소통하는 정치! 생각만 해도 멋진 정치다.

여성정치인에 대한 오해

정치는 잘 살아보자는 가장 원대하고도 소박한 것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멀게만 느껴진 걸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정치인은 보통 미디어를 통해 본 모습이지요. 치마정장에 조곤조곤 얘기하는 정치인, 조신한 정치인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린 여성정치인은 ‘여자들이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정치인 이전에 여성이어서 쉽게 매도되기도 하죠.”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이정아 대표는 만들어진 이미지와 현실에서만 얘기들로 가득한 정치만 보아왔다고 말한다.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는 여성과 닮았어요. 가정에서 남

편과 아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합의를 도출해가는 건 여성에게 훨씬 익숙해요. 여성들은 늘 약자여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시켜 가야했던 존재로 살아왔거든요.”

“정치는 내 얘기를 대변해 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정치인을 보면 남 얘기만 하는 것 같단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잘 듣지 않는 거 같아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정치인을 보기 힘든 현실. 지역에는 없고 국회 안에만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생활밀접형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어한다. 착하다고, 성격 좋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줄이고 쉽게 출마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벽을 낮춰야한다고 선거환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토론의 내용을 정리 발표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함께 귀 기울여주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았다. “어릴 때부터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있다면 좋겠어요. 물론 입시공부가 우선인 세상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요.” 한바탕 토론과 발표가 끝난 후, 다문화가정이 많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갖는 지역정서 등 참석자들은 파주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시 머리를 맞대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져 의제가 되고 이것이 정책이 되는 과정. 오늘 제대로 된 정치수업시간이었다. W

여성들의 꿈과 희망, 여성재단을 응원합니다

2013년 12월, 여성재단 생일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기부자들은 함박 웃음을 터뜨렸다. 스크린에 예담이(동화고2)와 예봄이(평내고1) 아주 씩씩하고 무뚝뚝하게 등장해서 '여성들의 꿈과 희망, 여성재단을 응원한다'고 생일을 축하해 주었던 것. 어색함에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 어엿한 고사리손기부자로 성장한 그들을 다시 만났다.



재단 축하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마침 일요일 오전, 남매와 함께 아버지 원순재님, 어머니 손영옥님도 함께 자리했다. 2년 전 영상애기를 꺼내자마자, 마주앉은 남매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며 속스러워했다. 사실 재단 축하영상 제작의 전말은 이러했다.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영옥 대표는 창립기념식 초대를 받았지만 갈 상황이 되지 않았다. 마침 축하영상이라도 보내면 어떠냐는 제안에 바로 그날 남매는 소파에 앉혀졌고 예담이가 직접 작성한 두 줄 축하멘트에 리허설도 없이 촬영에 임했다. 그야말로 돌발영상이었다.

“촬영을 하긴 했는데 많이 어색했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 근데 재밌더라구요. 끝나고 나선 아쉽기도 하고. (맞은편에 앉은 누나에게) 누나랑 호흡이 잘 안맞았어. 맞아. 다시 하면 잘 할 거 같아요.” 울겨울, 예봄이의 아쉬움을 말끔히 없애줄 새로운 축하영상이 여성재단에 도착할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온다.

아이들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원순재님은 ‘다 컸네’라며 흐뭇한 표정을, “그때와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성기도 지나고 키도 많이 크고 많이 편안해 보이죠”라고 엄마 손영옥님은 말했다.

여성재단을 잘 모르긴 했지만 그해 봄, 예담이와 예봄이는 엄마의 권유로 고사리손기부자가 되었다. 매달 1만원씩 의미 있게, 필요한 곳에 또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됐던 남매의 기부는 어느덧 3년째 접어들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뭔가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즈음에 아이들에게 권유를

했어요. 저는 민우회 활동을 하니까 여성재단을 잘 알고 있었고 아이들도 이제 나눔을 생활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또래친구를 돕는다니 신기해요

“여성재단은 제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100인 기부 릴레이 이끔이로 참여하고 있고 마침 또래를 돕는 고사리손기부를 알게 돼서 아이들에게 적극 권유했어요. 달리 선택의 여지없이 기부자가 된거죠.”

손영옥님은 가난한 나라에서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고사리손기부를 추천했다. “용돈을 아껴 기부해요. 몇 년 전부터 용돈을 동결했는데 아직 불만은 없나봐요.”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인 아이들을 대견해했다. 예담이와 예봄이는 “필리핀 여아들을 위한 지원은 여성재단과 잘 맞는 활동인거 같아 흐뭇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쓰일 줄 알았는데 해외의 또래친구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기했고요, 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 것도요”라며 미소지었다.

예봄이는 한 살 많은 누나에게 잔소리와 응석 등을 스스로없이 하면서 친구처럼 지낸다. 예담이는 미술을 전공할 생각이야. 본격적인 입시를 앞두고는 있지만 웃음많은 영락없는 여고생이다. 예봄이는 올해 고딩이 되었다. 자유로웠던 중학교때와는 달리 우선 건물크기에 압도당했다. 아직 낯선 친구들과 처음 치르게 된 시험결과에 당황했던 봄날을 무사히 보냈다고 했다.

기부자가족이 말하는 나눔이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친구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글썽요, 저희 엄마는 잔소리가 없으세요.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놀게 해주고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고. 알고보니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였어요. 하하” 그대신 잔소리 담당은 아버지 몫. 만연체로 계속 이어지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의 진짜 이유를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원순재님은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공부는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공부한 결과물을 꼭 나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잔소리 같았겠지만. 아이들이 고사리손기부를 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저도 일하고 얻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눔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게 된 남매는 ‘우와’하며 기부자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

“고사리손 기부자들의 모임을 통해 만나고 기부한 곳의 또래들의 근황도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한번쯤은 기부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면 나눔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더 깊어질 것 같네요.” 부부의 바람과 함께 고사리손 기부자 예봄이가 여성재단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기부금이 전해져서) 힘든 아이들의 사정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약한 여자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픈 아이들요.” 예담이는 조금 더 주문한다. “소중한 기부금이 투명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라고 당부했다.

인터뷰 후 9월 어느날, 한국여성재단이 삼일경영투명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예담이와 예봄이의 당부를 잘 지킨 것 같아 뿌듯했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W

사진 윤강수(재능나눔)

청소년양육 미혼모의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임신을 하면 학교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자오나학교가 지혜롭게 답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양육미혼모의 학습권과 양육권 모두를 위한 대안학교인 <자오나학교>. 여성재단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3일, 성북구에 위치한 자오나학교 3층에서는 청소년양육미혼모 대상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자오나학교>는 천주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가 만든 대안학교로 지난 2014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다니)엘맘은 스물두 살, 은호엄마는 열여덟 살이다. 두 살 된 아이를 둔 은호엄마, 올해 1월에 출산한 엘맘은 볼 때마다 쑥쑥 크는 아이를 보면 신기하고 뿌듯하다가도 병치레를 할 땐 또 마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다.

아이와 함께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곳

엘맘은 이곳에서 직업탐색중이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려면 3년 정도의 계획이 필요했다. 양육과 공부를 겸할 수 있어 다행히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은호엄마 역시 검정고시 후, 직업탐색중이다. 이곳의 양육미혼모들은 아이와 한방에서 지낸다. “보통 제가 일어날 때 아이도 잠을 깨요. 눈뜨자마자 저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이 이유식을 주죠. 그리고 저는 아침 공부를 시작하고 아이는 자원활동가 분들이 돌봐주세요. 점심때는 이유식을 만들거나 아이와 놀아줘요. 오후 보통 3시나 4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아이랑 온전히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또래들과는 다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또래의 일상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들에게 이 공간은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 “맞아요. 제 또래의 친구들은 보통 이 시간 때에 밖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계시고.” 엘맘의 목소리가 순간 잠겼다. “다른 미혼모 시설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됐어요. 모자원에서 다니엘을 낳고 일주일 만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모자원은 1~2주 밖에 있질 못하거든요.”

“임신테스트로 확인을 한 후 저는 바로 낳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후회하기보다는 키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은호를 임신했을 당시 다니던 학교는 그만두어야 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들이 수소문해 연결해준 미혼모시설에 있으면서 중학교 졸업장을 땀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와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은호엄마는 가끔 홀로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아이와 함께 다녀오곤 한다. “아버지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후회하진 않지만 한꺼번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힘들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은호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다행히 은호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착하고 큰 병치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엄마되기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특별한 수업이다. 길에서 지내는 게 더 편했던 친구들이어서 오히려 이

런 곳에 오는 걸 꺼렸던 아이들이다. 규율 없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양육과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오기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다.

특별하게 오늘은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애착에 대해 <YMCA서울아가야>의 윤경아 센터장이 수업을 진행했다. 함께 몸을 맞대며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아이가 처음 만나는 양육자로부터 느끼는 감정, 양육자가 아이와 어떻게 관계맺기를 할 것인지를 돕는 시간이었다. 함께 자리한 친구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 양육자가 되는 셈이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이에게 신경쓰느라 감추었던 감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방법도 새롭게 배운다.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할까요? 철학수업인데 서로 몸을 부딪혀보고 느낌을 공유하는 것들은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이밖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해법, 특히 정규직이 아닌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임금 받아내는 방법을 들을 때는 귀가 쫑긋할 만큼 집중력이 높다.

정릉 자락을 한참 올라 자리한 <자오나학교>는 나무도 많아 공기도 좋다. 아이와 함께 이곳의 2년 과정을 마치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병치레 잦은 아이 걱정이 한가득인 엘맘, 아이에게 늘 미안하기만 한 은호엄마. 지금 당장은 도움을 받는 처지지만 아이와 함께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W

후원문의 자오나학교 02-911-7580

미혼모에 대한 관심, 인식변화의 출발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편견 혹은 미담을 모아 분석하는 <우리는 美혼모의 행복을 談는 활동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사교양, 뉴스, 드라마영화팀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 8월24일, 시사교양팀 모니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을 방문했다.

신승렬(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저는 <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_ 목사님과 아기바구니> 편을 모니터했어요. 베이비박스 에 담겨 있는 아이를 단순히 미혼모의 아이라고 단정짓 듯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어”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보여 주었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한 측면도 있지만 반면 베이비박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의 사연들은 다뤄지지 않아 사회인식변화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거 같아 아쉬워요.

<KBS 수요기획_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네 엄마이야기> 편에서는 학업을 포기하고 지킨 생명이라는 자막에서 아쉬

움이 남아요. 여전히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이유로만 강조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나 제도 등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김미리(아동가족학과) <KBS 시사기획 창_ 내 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편은 미혼모들이 일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뤘어요. 아버지가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거절당하거나 해고당하는 경우를 보여주었어요. <SBS 공금한이야기 Y>에서는 아이를 버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이는 입양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무적자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다

뤘어요.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 묻는 프로였어요.

형소영(아동가족학과) <MBC 시사매거진 2580_ 불편한 진실, 낙태> 편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보다는 불법낙태 상황들이 더 부각이 되어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본 심층보도가 아쉬웠어요.

박지원(건축학과) <MBC 특집다큐_ 엄마의 꿈> 편을 모니터했어요. 초반에 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미혼부에 대해서도 다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PD수첩>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다뤘어요. 미디어속 미혼모는 자신이 선택한 아이에 대해 책임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휴머니즘 다큐가 대부분이죠. 좀 더 나아가서 사회인식차원에서 제도나 법 등의 개선을 위한 내용도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 시사팀 모니터회의중

관심, 인식변화의 출발

“처음에 학생들은 미혼모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미혼모를 둘러싼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캠페인을 하다보면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다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인식개선은 정확한 정보와 관심에서 출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죠.” 모니터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승렬님은 우연히 학부에서 입양에 대한 주제로 과제를 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입양아 대부분이 미혼모인 경우였어요. 처음엔 열 달 동안 배안에 키우다가 출산 후에 입양을 보내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다다랑쥬.”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상황, 정부의 지원도 미혼모보다는 입양하는 가족에게 맞춰져 있는 사회, 신승렬 대표는 우선 이들을 도울만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 4년째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사로 활동중인 그는 모니터단 활동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을 포함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인식개선모임 <두리모아>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미혼모도 아닌 일반 남자가 인식개선활동을 한다는 점이 오히려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다. 당사자가 인식개선을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은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요? 라며 부산에 미혼모당사자모임이 생긴다면 좀 더 도울 일이 많을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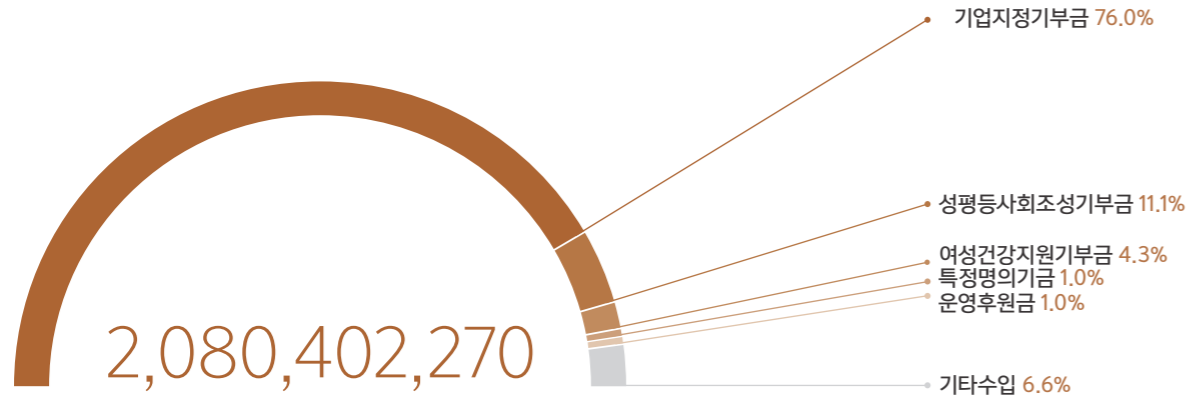
미혼모에 대한 관심으로 모니터단에 합류한 박지원님은 스스로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했다. 형소영님은 모니터 내용을 좀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매일매일 스킷 보는 미디어가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들도 처음에는 무심했다. 하지만 관심에서 출발해 모니터활동을 통해 나의 생각도 변화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하게 되었다.

모니터단은 연말 활동 결과를 모아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W**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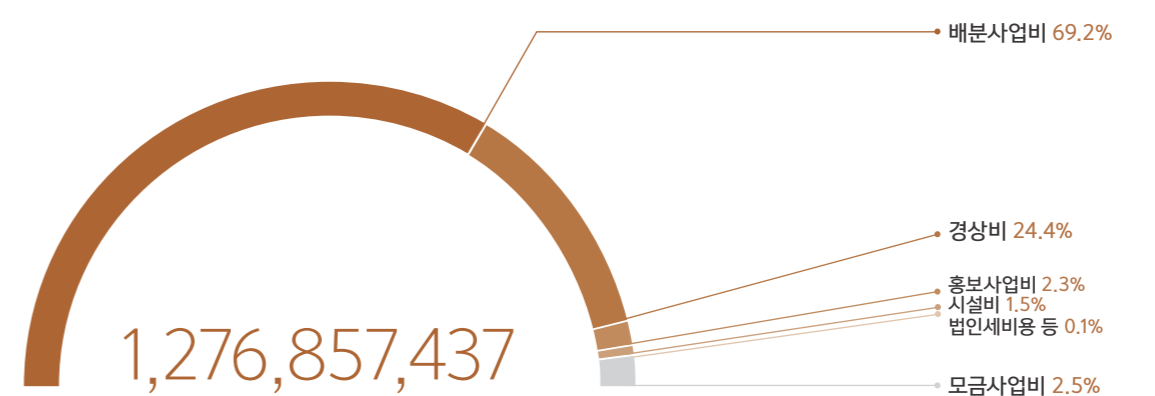
기간
2015.1.1 ~ 2015.8.31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82,199,672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30,470,512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0,167,45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김은하), 봄빛장학기금	18,05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20,74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138,774,636
총 수 입		2,080,402,270

지출

기간
2015.1.1 ~ 2015.8.31



구분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고유목적 사업비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32,096,070	
	배분사업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만만클럽사업	883,899,375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봄빛장학기금 (봄빛기금)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 공간문화개선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 여행-긴호흡 (교보생명)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 · 지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29,384,464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11,913,06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8,852,477	
	법인세비용 등	법인세비용	711,982	
총 지 출			1,276,857,437	

한국여성재단,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한국여성재단이 9월 17일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은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출발하여 16동안 함께 해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으로 나눔문화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인기 심사위원장(전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회장)은 “한국여성재단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식과 진행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돋보였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소통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와 기준을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자 삼일미래재단이 2009년 제정하였고 올해 일곱 번째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9월 15일에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중소기업 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2008년부터 매년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보고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JP모간 후원, 다문화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My Future, My Business> 사업 협약식



글로벌금융회사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이 9월23일 다문화여성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My Future, My Business>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총 2억 원의 규모로 다문화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심화컨설팅, 창업기금을 지원하여 다문화여성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5월~6월, 전국 공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다문화여성 창업팀들이 신청을 했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10개 팀이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창업 기본교육 과정이 지원되며 우수팀으로 선정된 5개 팀에게는 각각 창업심화컨설팅, 창업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도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다문화여성 창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본 사업의 첫 시작으로 창업기본교육과정이 지난 9월 11일(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청정원, 희망손가락 물품나눔으로 싱글맘 응원

건강한 식문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대상(주)청정원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2010년부터 매년 ‘희망손가락’을 통해 행복하고 맛있는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용기 잃지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싱글맘들을 응원하는 맛있는 행복을 전했다.



유한킴벌리, 물품나눔 희망뱅크 매년 진행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책임을 강조하는 유한킴벌리는 2011년부터 ‘희망뱅크’를 통해 물품나눔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설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에게 기저귀를 전달하는 나눔을 진행했다.

다문화아동 외가집 여행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등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23가족(87명)이 9월5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다녀왔다.

출생 후 한 번도 외가를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아동 23가족들은 5박 6일 동안 외가를 방문해 돈독함을 나누고, 외가 가족을 초청, 오찬과 부모자녀 프로그램, 베트남 문화체험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외가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문화, 다언어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 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 개발 연구> 출간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교육내용 제공 및 보급을 통해 양육미혼모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미혼모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자 <미혼모 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책임연구자:성정현 협성대학교 교수)>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육미혼모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자료: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내 출판물게시판)

2016년 여성재단과 함께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2016년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는다.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은 2002

년부터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진행되는 여성재단 대표 공모 사업이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 여성과 아동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지원사업을 분야로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10월26일(월)까지이다.

소식지 <딸들에게희망을> 모니터모임 개최



지난 9월22일, 여성재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기부자 강원화님과 조미님이 여성재단을 방문했다. 격월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구독하면서 생각한 의견을 전하고 또 소식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소식지를 읽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획홍보팀 02-336-6463)

2015 만만클럽 SOS 캠페인



예부터 부엉이는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영물로 여겨왔습니다.

경기도 안녕리 사람들도 뒷산 부엉이 한 쌍이 지켜주어

마을이 편안하고 농사도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부터가 이 마을에 개발 바람이 불어 우거졌던 숲들이 사라지고

부엉이도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족과 이웃의 부엉이가 되어주세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사회 SOS캠페인이 열립니다.

2015 만만클럽 SOS!

만만클럽은 희망을 만드는 정기기부자 1만 명 회원클럽입니다. 본 기금은 안전안심 사회만들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에 쓰입니다.



기부참여 전화 02-336-6463 메일 womenfund@hanmail.net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만만클럽 후원하기
후원계좌 농협 1279-01-000772 국민 079-25-0041-019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